문학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88년에 첫 作品集 낸 시인 · 소설가들

현실의 변화는 새로운 감수성을 가진 시인 · 작가들의 등장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 문학계는 뚜렷한 지향점은 구축하지 못했지만 권위주의 시대의 종말과 함께 보이지 않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90년대 문학을 책임질 젊은 문학인들의 첫 창작집을 점검해본다.

90년대를 일년 앞둔 지금 한국문학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걸까. '막장'같았던 80년대와 진정한 결별을 이루고 새로운 세계인식과 현실대응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가, 아니면 일련의 유화적 조치는 단순히 개량화에 불과할 뿐이므로 현재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전선을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할 시점인가. 뭔가 급격히 변화해나가고 있다는 느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느낌이 교차하는 가운데 88년은 저물었고, 그것은 문화면에도 그대로 이어져 전환기의 불확실성만이 작단과 평단의 지배적인 풍조로 정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젊은 평론가 이윤택의 평론집 제목 「해체, 실천, 그 이후」를 들어 비유하자면 80년대 중반기까지를 특징지었던 '해체'와 '실천'의 강행군이 어느 정도 주춤해 있는 사이 '그 이후'가 아직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지향점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젊은 작가 · 시인들은 각개약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많은 시집과 소설집이 그 성과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한해 첫 창작집을 펴낸 시인과 소설가들은 어떤 문제와 씨름해왔으며 어느 방향에 시선을 던지고 있는 걸까.

다양한 경향의 시집들 풍성하게 출간

현실과 밀착된 저공비행을 시도해온 민중시 계열의 경우, 80년대 전반기에 누렸던 도덕적 호소력이 다소 퇴색해감에 따라 잠시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집의 경우에도 특별히 새로운 별은 떠오르지 않았으며, 박노해와 김용택이 도달한 지점 이상은 개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안면의 「찔레꽃 하얀 꽃잎」은 노동현실 속에서 80년 5월을 투시해내는 시적 저력을 보여주었고, 오봉옥은 「지리산 갈대꽃」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끈끈한 유대감을 통해 파묻혔던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교직체험을 詩化함으로써 우리 시대 교육의 현주소를 묻는 조재도의 「교사일기」나 육질의 언어 속에 현실에 대한 숨가쁜 부딪침을 싣고 있는 유종순의 「고척동의 밤」, 때로는 처연하게 때로는 해학적으로 구질구질한 삶의 틈새를 보여주는 허수경의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등도 올해의 수확으로 기억될만한 시집들이다.

전투적 민중시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신용의 「버려진 사람들」은 밑바닥 체험을 개성적으로 노래한 뛰어난 시편을 담고 있어 주목을 요하며 윤종호의 「본동에 내리는 비」는 소외된 이웃들과의 따뜻한 연대감이 돋보이는 시집이다.

이처럼 현실을 향한 하강곡선을 보여주는 시집들과 달리 현실로부터 치솟아오르는 상승의지를 보여주는 시집들이 88년에는 많이 발간되었다.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경쾌한 몸놀림을 보여주는 황인숙의 「새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도시공간에서 유년시절 지복의 순간을 되새김질하는 이문재의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신화적 상상력으로 우리가 사는 시공간을 재편성하고자 한 河在鳳의 「안개와 불」이 일제히 나와 80년대 시에 전반적으로 결여되어온 부분을 재탐사하게끔 하고 있다. 간결하고 재치 있는 시행으로 구김살 없는 청춘의 초상을 보여주는 이능표의 「이상한 나라」, 상념의 자유로움을 언어의 자유로움으로 연결시킨 원재길의 「지금 눈물을 묻고 있는 자들」, 삶에 대한 깊이있는 사유와 적절한 이미지의 조립능력을 보여주는 김경옥의 「증기기관차의 추억」 송재학의 「얼음시집」도 매력적인 나름의 시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전통적인 정서에서 새로운 시적 자양분을 길어낸 복거일의 「五丈原의 가을」, 윤제림의 「삼천리호 자전거」, 洪又溪의 「玉가락지」, 위악적 언어로 세계의 허위성을 드러내려 한 박상우의 「사람구경」,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으로 삶과 자아의 긴장을 노래한 윤정선의 「우리들의 숲」, 이사라의 「히브리인의 마을 앞에서」, 양애경의 「불이 있는 몇개의 풍경」도 독자와 평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로 이십대 중반에서 삼십대 초반까지의 연령 분포에 해당하는 이들 시인은 길었던 권위주의시대의 억압 밑에서 감수성을 단련한 세대답지 않게 다양한 개성과 문학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양함은 미정형의 가능성인 동시에 80년대와 90년대의 미묘한 분절점을 엿보게 해주기도 한다.

80년대 현실 다각도로 조명한 소설들

시가 날렵한 몸짓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소설은 보다 무거운 보행을 해나가고 있다. 그것은 소설이 형상화과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장르라는 표면적 사실에 일차적 이유가 있지만 우수한 작품은 꾸준히 발표 · 출간돼오고 있다. 특히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등단한 작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동안의 작업을 정리, 독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김민숙 · 鄭鍾明 · 유순하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펴낸 「시간을 위한 진혼곡」 「耳鳴」 「내가 그린 내 얼굴 하나」등은 집필과 출판에 소요된 시간적 길이 만큼 문학적 무게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유순하씨는 장편소설 「生成」까지 발표하여 새삼 평단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념이 실제를 앞질러 간 대다수 노동소설과는 달리 치밀한 구조 속에 우리시대의 모순점과 문제들을 떠올리고 있다.

보다 운동권과 가까운 시각으로 창작을 해나가고 있는 작가들로는 「공단동 128번지」의 金水龍, 「일과 밥과 자유」의 김남일, 「새떼」의 崔仁碩, 「친구는 멀리 갔어도」의 정도상을 들 수 있다. 학생 · 도시빈민 · 소시민 등을 등장시켜 우리시대의 환부를 해부해 보여주는 김남일의 소설과, 광주사태 · 운동권학생의 녹화사업 등 충격적인 소재로 독자를 압도하는 정도상의 소설은 8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민중문학의 성과물들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최근 그동안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탄광촌을 소재로 한 소설이 두권 나왔다. 金鍾星의 「炭」과 최성각의 「잠자는 불」이 바로 그것. 단순히 소재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 시대 어둠의 깊이를 헤아리고 있다. 양헌석의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와 김제철의 「그리운 青山」은 각각 상반된 입장에서 현실을 조명한 작품들. 「태양은 묘지……」가 87년 6월투쟁의 양상을 신문기자의 시각에서 현장취재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한 소설이라면 김제철의 소설은 보다 통시적으로 고려말 무신정권과 80년대 정치현실을 중첩시키고 있다.

고원정씨

양헌석씨

河在鳳씨

이처럼 현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추상화해서 바라보는 방식은 고원정과 문형렬의 소설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고원정의 「巨人의 잠」은 정치적 알레고리를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으며, 문형렬은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에서 현실성을 탈색시키고 인간 내면의 스산함과 정처없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문학평론가 박덕규씨는 현재 우리 문학이 소재 차원에서는 자꾸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앞으로 보편적 공간에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차원까지 나가자면 보다 정련된 작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90년대를 앞둔 문학계의 조심스러운 지각변동은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세계인식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진우 기자